



“선학원 항일의식 투철한 스님들이 창설”

만해·용성·만공 중심... 사찰령·대처식육반대 선풍진작

김광식씨 논문서 밝혀

조계종·선학원 문제가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에 연구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김광식씨가 최근 나온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에 발표한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그 성격」이 그것.

그간 선학원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씨의 논문은 일제하 한국 불교계의 실상과 성격을 이해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논문을 통해, “선학원은 일제의 사찰령(寺刹令)과 일본 불교의 침투로 인한 한국 전통불교의 몰락을 개탄한 항일의식을 소유한 승려들의 발로에 의해 1921년 창설되었다”고 말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한운은·백용성·송만공 등의 승려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이른바 ‘대처식육(帶妻食肉)’에 대항하며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일제하 불교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것.

그러나 선학원의 제반 활동은 재정문제로 인해 그 존립기반에 대한 문제가 초창기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중앙전쟁·태평양전쟁 이후부터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에 굴절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논문에서 일제하 선학원의 창설·침체·재건·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921년 11월30일, 선학원 창건 △1922년 3월30일, 선종(禪風)의 진작과 전국 수좌들의 수행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 김광식씨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의 조직 △1926년 5월, 범야사 포교당으로 그 기능이 용도 변경되면서 참회회 △1931년 김적음(金積音)에 의한 선학원 중흥 △1934년 12월, 재정문제를 법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학구임으로의 개편 △1941년 2월말~3월초, 선학과 계율의 중지를 지키기 위한 청정비구들의 유교법회(遺敎法會) 개최 △1942년, 한국 불교의 중흥조건인 경허선사의 문집 발간 주안 △중앙전쟁 및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강압적인 군국주의 체제로 인한 굴절 혹은 변질등

(김재경기자)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환 해인사

◇ 대적광전

佛身普放大光明(불신보방대광명) 부처님이 대적광명을 두루 놓으시니 色相無邊極淨淨(색상무변극정정) 형색(形色)과 모양 가

대원군 친필... 해탈환희심 묘사

이없어 지극히 청정하시네. 如雲充滿一切土(여운충만일체토) 구름이 모든 국토(國土)에 충만하듯이니 處處稱揚佛功德(처처칭양불공덕)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네. 光相所照威嚴歡(광상소조함환희) 광명이 비치는 곳 넘치는 환희의 衆生有苦悉除滅(중생유고悉除滅) 중생유고(중생의 고통을) 씻어주는 것이니 佛身普放大光明(불신보방대광명) 부처님이 대적광명을 두루 놓으시니 色相無邊極淨淨(색상무변극정정) 형색(形色)과 모양 가

花鳥鳴嘯詩(화기조전시) 꽃이 기이하니 새가 시(詩)를 읊조린다. 培栽心上地(배재심상지) 마음의 터밭을 일구어 願獲性中天(원활성중천) 본성(本性)의 꽃을 가꾼다. 해설 매우 시적인 이 글은 대원군의 친필로 보인다. 선정정에서 깨달음의 열락을 구하는 열망의 주련답게 반짝이는 선지(禪指)가 돋보인다. 정력(定力)이란 모든 산만함을 쳐부수 수 있는 선정의 힘을 뜻하고 재심(齋心)은 부정을 버리고 맑음 깨끗이 하는 마음 가짐을 의미한다. (안동 경안여중 교사)

“신라 태현 유식학은 독창적”

중국 인도 학설비판 주체적 태도 지녀

방인교수 서울대 박사 논문

원효, 경총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에 속하면서 원효 이후의 신라 유식학을 대표하는 태현(太賢; 742-764)의 사상사적 성격과 철학적 체계를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경북대 철학과 방인교수는 94년도 후반기 서울대 철학박사학위논문인 「태현의 유식학 연구」를 통해, “원효 이후 진행된 신라 유식학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태현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방교수는 논문에서, “태현은



◇ 방인교수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유가조(瑜伽祖)라 불리울 만큼 원효와 비교되는 유식사상가의 위치를 점했다”며, 그가 초기의 화엄종을 위주로 하는 성종(性宗)에서 후기의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상종(相宗)의 계보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면서도 전통불교 회통성을 유지한 사실은 높이 평가

된다고 밝혔다. 방교수는 태현이 원효와 자신의 스승인 도종을 비롯, 중국 법상종의 규기의 학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유식학의 교리를 인도의 전통철학인 상가철학과 바이세카철학과 비교할 만큼 폭넓은 학식과 국제적 안목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태현 유식학의 핵심부분은 인식 객관에 관한 이론인 삼유경설(三有經說)과 인식구조에 관한 이론인 사분설(四分說)로 지적되는데, 신라 경종(景德)과 일본의 선주(善珠)가 「대승기신론(大乘法苑珠林)」과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 태현의 사분설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독창성이 일찍부터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

‘인도철학’ 제4집 발간

논문 12편 실어

인도철학회(회장 원의법)는 최근 <인도철학> 제4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간디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법산) △인도의 제사상 연구(이법산) △우와 율의 양립문제(정승숙) △‘중론’에 나타난 용수의 연기관(윤종갑) 등 모두 1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둘 장승이 아이 낳는다는 뜻은

문 참선곡 맨 끝쪽에 보면 ‘둘 장승이 아이 낳 그대 말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화두로 삼아 공부해 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 시하구 김천동·이숙정)

답 그것은 말로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공부 잘 하면 둘 장승이 아이 낳는 소식, 둘 장승이 우는 소리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로 몰아서 놓고 한 군데서 몰아나와도 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바로 둘 장승이 아이 낳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 놓을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부터 내가 만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가지 사람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이심전심으로 말안하고 안 들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셔놓고 한 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가

다 한자라도 과학만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개구리 알 하나에서 원리를 찾더라도 그 가지수는 무한이라고 해야 할 정도인데 어느때 가서 과학이 그것을 다 밝혀 내겠습니까. 그러기에 인지(智)의 과학이 아니라 부처님 지혜의 심성과학, 즉 마음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문명이 장차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것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는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언하건대 마음공부란 최상승의 공부입니다. 알다시피 과학자의 능력이 첨단을 걸음만큼 고도화되었다 해도 과학자가 은하가 될 수 없고 태양이 될 수 없고, 저 나무나 곤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제가 없는 것이니 모든 것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저 수미산에도 우주에도 티끌에도 응할 수 있고, 사할 소 돼지 곤충이 생물에도 응해 한 할애에 무명을 벗겨 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없는 문이요 만 가지 법에 걸림없이 나투는 평등의 광범이

지상상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령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관하 음선원 대령스님에게 질문과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해 줍니다.

보낼 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께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또 모셔놓은 영가의 위패를 내 마음에서 풀이해 한 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풀이든 나무든 기둥든 내 마음으로 향해 합쳐 둘 아니라고 본다면 풀이 아닌 깨달음이 이심전심의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생각 낸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문 금강삼매경에 보면 무주보살이 세존께 “어떤 것을 한 생각의 움직임이라 하리까?” 여쭙자 세존께서 “한 생각 움직이면 오름이 겹쳐나기 오름이 오름이 오심익이 갖춰져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한생각 낸다는 경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대구 중구 하서동·목일준)

답 한생각 내고 들린다 함은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한생각이라니가 개별적인 생각으로 알기 쉬운데 전체가 함께 돌아가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생각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이 한생각입니다. 즉 머무름이 없는데 생각을 내는 것이 머무름이 있는데서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이미 경계에 매인 생각이니 사람 분별과 다름이 아닙니다.

아무런 착각없이 한생각 일으킨 것, 그것이 한생각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어떤 것이 한생각이라고 했으니 이미 머무는 바가 있는게 되고 따라서 생각을 지은 그 자리에 욕심, 애착, 편견, 분별, 아상이 붙어 있을 것이니 오름이 오름이 갖춰져 있다고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머무는 바 없이 한생각 일어난다면 온 우주의 마음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과학공부가 더 낫지 않을까요

문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입니다. 구태여 마음공부를 하지 않아도 살아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광주시 북구 일곡동·김천규)

답 현대 과학문명이 아무리 고도화되었

바로 마음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고 갔어 결말이 없으니 여러 가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문명이 우리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쁨과 마음을 개발해야만 사물의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물질로만 치달는 것은 막대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주인공에 놓는 방법을 여쭙니다

문 스님께서는 좋은 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등 일체를 근본 마음자리-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맡겨서 지켜보라 하시는데 놓는다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천시 북구 부평1동·류경준)

답 일체의 모든 것, 즉 이 우주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은 바로 마음이고, 따라서 전체는 한 법망으로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뒤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인공이라고 하니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연상하는데 마음엔 제가 없는 법, 따라서 주인공도 본래 공한 마음자리입니다.

따라서 ‘어디에다 놓느냐’ 했을 때 ‘공에다 놓는다’, ‘공은 어떤 것이냐’, ‘모든 생명이 같이 돌아가는 곳(장소가 아님)이 공이다’, 그러면 ‘나는 빠졌느냐고’ ‘나까지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가 공이요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 놓을 것은 어디이고 빼어 들 것은 어디 있느냐 하겠지요.

전체가 공이라 본래 놓아진 것이지만 그 도리를 모르고 ‘나’ ‘내것’ 하니가 공에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놓는다 함은 ‘내가 하는게 아니라 주인공 도리에 하는 것이니 공이 하는 것이다’ 하고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믿고 놓으니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놓는 것은 믿음입니다.

“종교전문교육기관 공식 인정을”

종교교육문제 토론회 제1기

강원과 불교대학, 선학원, 신학교 등이 종교교육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종교전문 교육기관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달 21일 한국종교전문교육협의회(회장 윤이승) 주최로 열린 ‘한국종교전문교육문제 토론회’에서 동국대 박선영교수(교육학과)와 총신교회 신태용목사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선



◇ 박선영교수

영교수는 “종교전문교육의 방향과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극복을 위해 종교에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여러 종교인들이 연



◇ 신태용목사

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교전문교육의 공식화는 마땅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태용목사는 “한국종교전문교육의 현황과 대책”을 통해 종교전문교육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종교전문 교육기관을 정부에서 인가하고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 △종교전문교육의 자율적 통제기관 설립, △정원성의 함양 등을 제시했다.

한글대장경 14권 속간

지난해 동국대 역경원

동국대 역경원(원장 원운)은 최근 <삼승(三乘經)>, <근본설일체유무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昆奈耶)>, <대일경(大日經)>, <금강정경(金剛頂經)>, <화엄경(華嚴經)> 1, 2권 등 한글대장경 14권을 추가로 출간함으로써 지난 한해동안 모두 26권의 경서를 번역하는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1995학년도 법사부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집안내

1. 모집학부: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출강 00명, 통신 00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720-1836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720-1836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일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월 1원(금원)

도서출판 한녜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253-6894-5
팩스: 785-1228, 253-6895